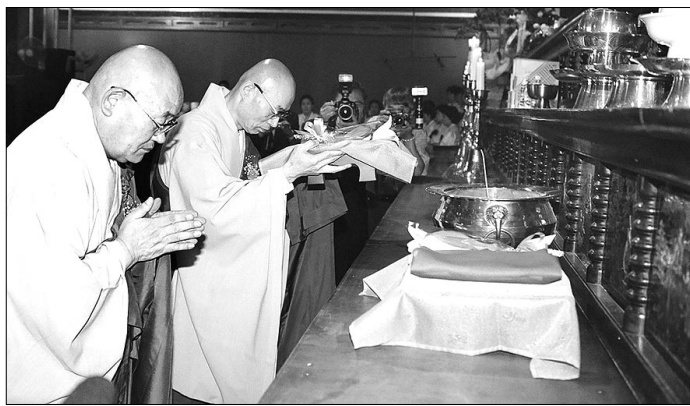


'간화선-조계종 수행의길' 발간

조계종, 3일 봉정법회 갖고 보급 시작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왼쪽)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부처님 전에 <간화선>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간화선' 종합지침서인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이 완간돼 본격적으로 사부대중에게 보급된다.

조계종은 5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봉정법회를 기점으로 전국 서점과 사찰에 <간화선> 보급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간화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포교원(원장 도영이)이 준비하고 있는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간화선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간화선> 봉정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동훈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작금에 간화의 종지

가 당주에 거듭 내걸리니 만고의 지남이요 선문의 황구로다. 승속의 화계가 여기에 있으니 정로대로 참구하고 또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편찬위원장 혜국 스님은 "말의 혼적을 빌려서라도 최상승 화두삼법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방 선원장 스님들이 간화선 편찬에 동참하게 됐다"며 "오직 큰 신심과 큰 의심, 큰 분심을 일으켜 확철대오 광도증생하여 조계선맥이 증흥하기를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 역시 "종지를 선양하고 종풍을 진작시키고자 <간화선>이 간행되었으니, 제불제도가 수화찬란하고 사부대중이 환희용약할 일대 폐기"라고 치하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승가교육제 개선 필요 77.7%

조계종 승개추 4일 공청회서 설문결과 발표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이하 승개추)의 첫 공청회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교육원, 교구본사 관계자, 종단 교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승개추 부위원장 황적 스님의 '승가교육제도개선안(시안)' 발제에 이어, 직지사 주지 성웅, 월정사 주지 정념, 동국대 교수 법산, 총무부장 무관,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선원 대표 영진, 화엄학원 학장 재연, 청암승가대 강주 지형, 범어사 강원 강사 용학 스님의 토론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승개추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승가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결과 현 승가제도교육제도의 개선필요성에 대해 77.7%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출가 연령의 상한선은 현행대로 40세 제한이 21.2%, 연령제 폐지 20.5%로 팽팽히 맞섰다. 특히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심자의 선별 출가를 허용하자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행자교육기간은 현행 3주와 3개월을 주장하는 응답자가 6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은 종회의원, 중무기관 소임자, 교직자, 선원, 중진 및 교육관계자 273명이 참여했다.

조용수 기자

"낙산사 복원 기원 우표에 담았어요"

양양지역의 산불로 인해 소실된 낙산사 복원을 기원하는 우표 2종(사진)이 나왔다.

강원체신청(청장 장광수)은 5월 3일 낙산사 복원을 기원하는 낙산의 우표 2종(홍보형 태극기, 홍보형 연꽃) 14매 한세트를 발매했다.

낙산의 우표에는 화재발생전 촬영한 보물3종(동종, 건철관세음보살상, 7층석탑)과 유형문화재 6종(원통보전, 흥예문, 흥련암, 의상대, 원장



공중사리탑을 비롯한 총 15종의 낙산사 사진이 수록돼 있다. 전지 1장당 판매가격은 8,000~5,600원이며,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낙산사 복원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033749-2135 김원우 기자

장충식 東大박물관장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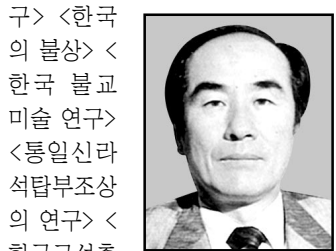
4월30일 지병으로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 교수(사진)가 4월 30일 오전 3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

동국대 인도철학과 출신인 고인은 1993년부터 동국대 정교수로 재직했으며, 일본 류코쿠대(龍谷大)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지냈다.

진주농대 재학중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지언(地蓮)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던 장 교수는 종비생으로 동국대에서 수학한 뒤 군법사로 군포고 활동에도 매진했다.

한국의 불교 미술과 경주 신라유적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인은 <고려 화엄판화의 세계> <신라석탑연



고인의 유해는 5월 4일 동국대 박물관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고양시 벽제 승화원에서 화장됐다. 조용수 기자

"없는 세월마저 뒤쳐 몸을 벗으니..."

조계종 원로 벽암스님 6일 원적, 10일 원로회의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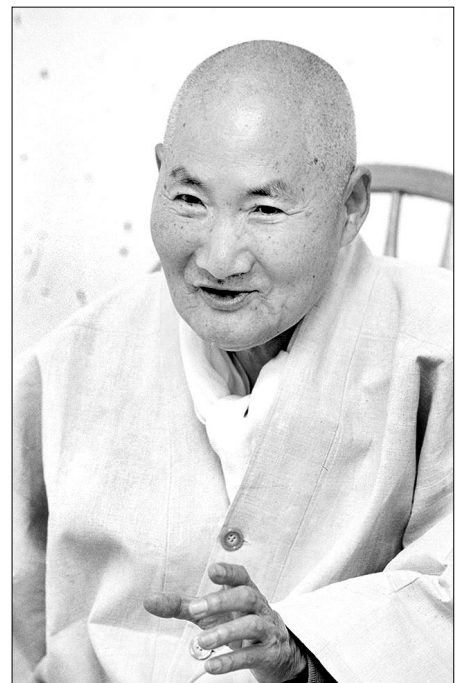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이자 신원사 조실인 벽암(碧巖)당 동일(東日)대종사가 5월 6일 오전 8시 공주 신원사 벽수선원에서 원적했다. 세수 82세, 법랍 61세.

192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한 벽암 스님은 예산수목사에서 6년간 공부하다 46년 적음 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일승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60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65년 경주 불국사 주지, 68년 선학원 이사장·동국대학교 이사장, 72년 조계종 총회회장, 78년 종정 직무대행, 86년 원로의원, 97년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2004년 대종사 법계를 폄수했다.

벽암 스님은 원적하기 전 "춘추가 비고 고요하여 겨울-여름 비껴어 매었는데 팔십 평생 안거에 해와 달이 없구나. 홀연히 비어 없는 세월마저 뒤쳐 몸을 벗으니 비추어 보며 봉우리 위에는 달빛이 새롭구나"라는 임종계를 남겼다.

영결식은 10일 오전 11시 신원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진다.



벽암당 동일 대종사.

■ 벽암당 동일 대종사 행장

벽암당 동일 대종사는 1924년 남해 고현읍 도마리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40년 풍운을 꿈꾸고 일본으로 유학, 간사이(關西) 대학에서 공학(工學)을 공부했지만 회의에 부딪치게 된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타고 나기를 병권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거늘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신학문을 익힌 것이란 말인가?"

스님은 귀국하는 즉시 방문을 걸어 잡고 고뇌하고 번민하다가 문득 <육조단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놀란다. "나도 육조 스님처럼 자기 성품을 스스로 건너는 큰 길에 들어서야겠다."

벽암 스님은 46년, 일류 학승들이 다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역경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원장이었던 은사 적음 스님을 만나게 된다.

벽암 스님은 생전 시자를 두지 않았다. 스님은 "불가에 적이 있을 수 없다. 자기 공부도 바블 텐데 언제 남 시종들 시간이 있겠느냐"며 시자 두기를 거절했다.

벽암 스님은 또 계행(戒行)을 늘 강조했다. "청정한 몸에서 청정한 정신이 나온다"는 스님은 생전 "이를 닦은 후 물로 입가심할 때 앉아서 하라"고 자주 이야기했다. 입가심하고 나서 물 빨을 때 서서 하면 옆 사람에게 물이 튀게 될 뿐 아니라 미물에게는 서서 빨는 물이 폭포수나 다름없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다. 스님이 생각하는 계율의 범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님은 마음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묵언(默言)'을 권했다. 찾아오는 사람과 말하기를 아끼지 않았지만,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법문하기를 싫어했다. "그 자리에 서면 스스로 실생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가 쉽고 그것은 죽은 법문이나 마찬가지로 지"라는 이유에 서다.

인생 두고 번민하다 '육조단경' 읽고 발심

청정계율·묵언정진 강조하며 몸소 실천

스님은 안거가 시작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후학들에게 용맹정진을 몸소 보여줬다.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현각 스님도 신원사에서 동안거를 난 후 "나는 신원사에서 살면서 한국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새록새록 가지게 됐다. 수행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해야 한다는 옛 선사의 가르침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벽암 스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동안거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선수행에 참석해 계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회고했다.

스님이 입적하던 날 제자 법전 스님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무적벽수(無滴碧水)가 장강(長江)을 이루고 대해(大海)를 고갈(枯渴)시키느니라"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제자 지성 스님이 "제불조사(諸佛祖師)의 의지는 무엇이며 공부는 어떻게 지어 가야합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아침에 죽어요, 사시(巳時)에 마지 울리고 저녁은 없느니라"라고 답했다.

스님이 잠시 쉬었다가 "잘 달래주고 기운내 정신 차려 절도있게 살피며 살아가야 옳으니라"라고 말하자 제자 견진 스님이 "필경 이 무슨 도리입니까?"라고 물었다. 벽암 스님은 "박수미회(拍手未會)에 작창가(作唱歌)나라(박수도 치기 전에 노래 부르는 것이니라)"라고 답했다.

언제나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

모바일에 등달기 조계종 22일까지

조계종이 자비나눔기금사업 일환으로 '2005 사랑나눔-희망의 모바일 연등달기'를 5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주)선도텔레콤과 (주)팜미디어와 함께 하는 이 사업은 연등이나 일반 불교관련 캐릭터 및 사진과 연등관련 이미지가 포함된 축원 문자메시

지를 핸드폰에서나 인터넷상으로도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한 화면을 다운로드 하는데 드는 비용은 700원이며, 이 중 일부는 낙산사 복원이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 쓰여진다. 휴대폰으로 참여하려면 **0408*을 입력한 뒤 각 이동통신사 사전인터넷 접속키를 누르면 된다. 홈페이지(www.0408.or.kr)로도 가능하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독도에 봉축 연등을 답니다.

5월 9일,
독도에 부처님의 가피가 내립니다.
조계사는 외로운 섬 독도에
불자님들의 서원을 모아
봉축 연등을 답니다.

또한, 독도에서 운명하신
분들의 혼을 위로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함께하심을
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